



“LET'S GO 2025, 3년 차 실행력 보여야 할 때” 선보공업·선보유니텍 아침특강 실시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이 1월 18일과 2월 1일 각 공장 교육장에서 'LET'S GO 2025' 아침특강을 실시했다.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LET'S GO 2025 중장기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 아침특강은 각 공장 선임 이하 임직원 전체와 책임 이상 임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을 담당한 최경호 상무는 선보가 국내 업계 환경과 리스크에 따라 구축해온 경영 혁신 로드맵 역사를 소개하고, LET'S GO 2025의 전략 방향과 실행과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었다. LET'S GO 2025는 8대 전사전략의 세부 목표를 단기('21)와 중기('23), 장기('25)에 걸쳐 구분한 것으로, 전 조직의 목표를 일체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조직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품질 차별화와 시스템 혁신, 끈끈한 파트너십과 사회공헌 등 선보 고유의 핵심 가치와 사명을 경영 전략에 녹여냄으로써 '작지만 강한 선보'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다.

최경호 상무는 “LET'S GO 2025 중장기 비전 3년 차를 맞아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강한 실행력을 보이는 것이 절실한 때”라며 “이를 위해 수립된 세부 업무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 특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LET'S GO 2025를 통해 위기 극복과 더 큰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선보 혁신 과제에 도전적으로 임하며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선보공업 김상도 대표이사는 '2023년 중점 경영 방침'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 조성 ▲LET'S GO 2025 4대 목표 강력 실행 ▲원가 경쟁력의 확실한 우위 확보 ▲미래 성장 동력 준비 강화 ▲업무시스템 및 기업문화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수상

선보하이텍, 현대삼호중공업 품질우수협력회사 선정

선보하이텍이 1월 13일 현대삼호중공업 품질우수협력회사에 선정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우수협력사 인증서를 통해 선보하이텍의 투철한 품질 관리와 납기 준수 노력이 당사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격려와 감사사를 전했다. 선보하이텍의 모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선보하이텍 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상생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기자재 공급망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선보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조선업 생태계가 부침을 거듭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모기업과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 경영에 힘써왔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글로벌 트렌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친환경 LNG 선박이 주력 분야로, 세계 시장에서 매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력이 경쟁국인 중국을 압도하고 모기업의 올해 경영 전망 또한 긍정적인 만큼, 선보는 모처럼 찾아온 활황기를 동력 삼아 시장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올 초부터 슈퍼 사이클에 돌입,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LNG 운반선 발주 물량을 공격적으로 휩쓸고 있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사들도 연쇄 상승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사내 복지

달콤하고 따뜻한 정(情)과 배려의 마음 나눠요



4일간의 설 연휴가 끝나고 출근일인 1월 25일 선보공업 본사 정문 앞에서 아침 격려 인사가 진행됐다.

최금식 회장을 비롯해 각 공장 임원들은 오전 6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정문 앞에 나란히 서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했다. 임원들은 “가족들과 명절 잘 쇠셨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과 함께 직원들에게 초코파이와 박카스를 직접 건넸다.

아침 격려인사는 계묘년 첫 출근일이었던 1월 2일에 이어 이번이 올해 두 번째다. 신년 경영 전략과 업무 계획 수립으로 바쁜 첫 달에 드물게 격려인사를 연이어 실시한 것에는 올해도 가족친화경영을 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최금식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최금식 회장은 “빨간 초코파이 포장은 달콤하고 따뜻한 정(情)의 의미를 담고 있고, 푸른 병의 박카스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깊은 정으로 충만한 한 해,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선보Family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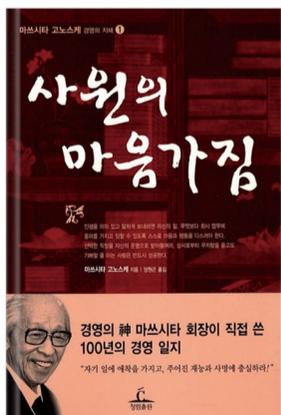
선보는 올해 사내 복지 및 가족지원제도, 탄력근무제 등 제도적 차원 외에도 소소한 행사와 나눔의 시간을 자주 마련해 선보Family가 상호 위안을 얻고 동료애를 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내

『사원의 마음가짐』 전사 독서토론회 일정 안내

선보Family의 즐거운 여가 지원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오는 23일(목) 전사 독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상 도서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던故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저술한 『사원의 마음가짐』입니다. <SUNBO NEWS> 1월호에 소개된 선보Family의 인생 도서 중 다수의 추천을 받은 도서이기도 합니다.

전사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도서를 읽은 후 서평을 작성하고, 토론회 당일 부서별 감상 및 서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출된 서평 중 우수작은 별도로 시상합니다. 선보Family의 관심과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 시 : 2월 23일(목) 오전 8시~9시 *전 부서 동시 진행

▶ 대상 도서 : 『사원의 마음가짐』 *1월 31일 도서 배포 완료

▶ 진행 방식

- ① 개별 독서 후 서평 작성(개인 목표 및 실행 방안 포함)
- ② 부서별 서평 공유 및 독서토론회 진행(소속 임원 포함)
- ③ 부서별 서평과 토론회 단체 사진을 2월 28일(화)까지 김자영 사원(총무팀)에게 제출
- ④ 우수 서평 별도 시상

안전

안전 또 안전... 잊지 말자 '무·서·대'



선보공업이 1월 25일 오전 다대1·2공장에서 안전서약식을 개최했다.

선보공업 전 부서와 협력사 임직원들은 13개 조약으로 이뤄진 안전서약을 낭독하고 대표자를 통해 안전서약을 전달받았다. 김상도 대표이사는 서약을 전달한 후 훈시를 통해 “작업뿐 아니라 휴식 시간 등 직장 내 모든 상황에서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안전은 품질이나 공정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제1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리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대충 하지 말 것(무·서·대)’과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은 대표이사 훈시 후 새해 인사를 통해 “언제나 동료 배려하고 사랑하며 가족적인 분위기의 회사, 즐거운 회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를 전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안전

“고소작업 사고방지 지침 꼭 숙지하세요”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선보공업을 비롯해 생산 및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근무 환경의 위험 요소 발굴 및 제거, 근로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안전난간 미설치와 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인한 고소작업대 재해는 사망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요구된다. 선보는 전사 임직원 및 협력사에 고소작업 사고방지 지침을 전달,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침을 상호 준수하며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고소작업 사고방지 지침 •

- ① 탑승 후 작업대(바스켓) 출입문을 반드시 잠그고 작업
 - 작업대의 안전난간 설치상태 확인
- ②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
- ③ 고소작업대(스카이)의 전도방지용 아웃 트리거를 펼친 후 작업
- ④ 작업대에 정격 하중 초과 탑승 및 적재금지
- ⑤ 운전자는 작업대가 장애물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변 상황 사전 확인
- ⑥ 고소작업대(스카이) 주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⑦ 현장에서 불안정한 행위 및 상태 금지
 - 작업대 출입구 상부 안전난간을 철사·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 작업대 풋페달 스위치에 쇠기 등을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

선보Family

우리 동호회가 궁금해? - 우쿨렐레 동호회

우쿨렐레는 마치 바이올린의 축소 버전 같은 작고 귀여운 사이즈와 경쾌하고 독특한 음색이 매력이다. 현악기를 배우고 싶지만, 어렵고 무거운 취미는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입문용으로도 추천하는 악기다. 최근 선보에는 입사 전부터 우쿨렐레에 진심이었던 이용웅 책임(설계4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쿨렐레 동호회가 결성됐다. 함께 앓을 곳만 있다면 휴게실 이든 카페든 어디든 좋다. 이제 막 입문한 회원들은 손가락 끝 떨림에 집중하며 맑고 높게 퍼져나가는 우쿨렐레 소리에 한창 빠져드는 중이다.



1. 우쿨렐레 동호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호회는 우쿨렐레 연주를 통해 사우(社友) 간의 소통과 취미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2. 우리 동호회의 특징이나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신설 동호회라 특징은 차후에 드러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우쿨렐레 연주에 빠지면 더할 나위 없이 감성 지수가 높아지고 셀프 힐링(Self-healing)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동호회 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신설 동호회다 보니, 앞으로 많은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피소드는 다음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웃음).

4. 현재 선보는 복지수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동호회 활동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쿨렐레 동호회에서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지?

아직 복지수당을 활용한 회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스킬을 높이는 일 못지않게 큰 애로사항이 악기 및 부대 물품의 마련인데요, 복지수당을 통해 공용(입문용) 악기와 보판대, 악보집 등의 필요 물품을 구입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연주모임 활동이 한결 수월하리라 생각되네요.

5. 앞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활동 분야가 있는지?

혼자 야외에서 연주를 즐기려면 강심장이 되어야죠.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나서거나 협연한다면 그 부담보다 만족감이 더 클 것입니다. 비록 회장인 저만의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단체로 우쿨렐레를 들고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 멋진 연주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6. 우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취미 활동은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쿨렐레 연주모임을 부담 없이 즐기는 회원들이 되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갑시다.

7. 마지막으로 최종 어필 타임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혹시 스스로 음악적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쿨렐레는 음악에 무지한 사람도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악기이자 취미 활동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남녀노소 불문하고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인터뷰=우쿨렐레 동호회 회장
이용웅 책임(설계4팀)

회사소식

신규입사자

올해 초 10명의 신규입사자가 선보Family에 합류했다. 조산업이 활황을 맞으며 선보도 새로운 얼굴들을 맞이할 기회가 많아졌다. 기자재 강호(強豪) 선보의 앞날에 더 크고 강한 날개를 달아줄 신규입사자들을 응원한다.



고나원 사원(선보유니텍 재무인사팀)

좋은 회사에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은솔 사원(선보하이텍 설계팀)

입사 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반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직장만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민진 선임(FGSS 설계팀)

입사 첫날, 모두 반갑게 맞아주시고 친절히 교육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용한 듯 바쁘게 돌아가는 사내 분위기를 보니 저도 어서 녹아들어 선보공업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예지 사원(선보하이텍 설계팀)

가족 같은 분위기인 선보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즐거운 마음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발전하는 선보인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정규 사원(선보유니텍 생산관리)

사회초년생이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선배들과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일을 빨리 배워서 도움이 되는 사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진아 사원(전계장설계팀)

새로운 선보인으로서 도전의식과 근성을 갖고 회사와 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영군 선임(품질경영3팀)

입사하게 되어 기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혁 사원(품질경영3팀)

첫 회사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교육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동규 책임연구원 (선보유니텍 부설연구소)

선보Family의 구성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서 부끄럽지 않은 선보인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선임 (선보하이텍 총무안전팀)

낮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업무지만, 모두 잘 어울릴 수 있게 대해 주셔서 한결 적응이 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출근날 스스로 약속한 잘하겠다는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사내 복지

사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선보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선보는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오랫동안 신뢰로 함께해온 가족들이 있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와 기쁨은 두 배로 나누고, 어려움은 힘을 모아 극복하며 소중한 땀방울과 열정으로 헌신해온 장기근속자들에게 선보Family 일동이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 장기근속자 명단

| 이름·직책 | 소속 | 입사일 |
|----------|-------------|-----------------|
| 최홍렬 대표이사 | 선보피스 | 2003.1.01(20주년) |
| 윤동현 선임 | 선보공업 영업2팀 | 2013.1.21(10주년) |
| 인진태 전무 | 선보공업 설계1담당 | 2018.1.01(5주년) |
| 박누리 사원 | 선보하이텍 총무안전팀 | 2018.1.29(5주년) |
| 정준영 선임 | 선보유니텍 설계5팀 | 2018.2.01(5주년) |

▶ 장기근속자 포상 내용

| 근무 연수 | 포상금(원) | 유급휴가 |
|-------|-----------|------|
| 5년 | 500,000 | 1일 |
| 10년 | 1,000,000 | 2일 |
| 15년 | 2,000,000 | 2일 |
| 20년 | 3,000,000 | 3일 |
| 25년 | 4,000,000 | 3일 |
| 30년 | 5,000,000 | 3일 |

*포상은 근무 연수 해당 입사일에 지급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 본사 | 황지석(2.16) | 장태린(2.22) |
|----|-----------|-----------|
| | 김소연(2.18) | 박종혁(2.26) |
| | 이대현(2.18) | 이경진(2.28) |
| | 안창희(2.20) | 최희섭(2.28) |

| 다대1공장 | 이철현(2.01) | 마 빈(2.04) |
|-------|-----------|-----------|
| | 길베포(2.03) | 안 민(2.22) |

| 다대2공장 | 노재태(2.01) | 전형주(2.20) |
|-------|------------------------------|-----------|
| | 최복식(2.02) <td>최광욱(2.21)</td> | 최광욱(2.21) |
| | 한충민(2.02) <td>권병덕(2.25)</td> | 권병덕(2.25) |
| | 이경화(2.05) <td>성기갑(2.26)</td> | 성기갑(2.26) |
| | 푼 투(2.05) <td>장재욱(2.27)</td> | 장재욱(2.27) |
| | 유완중(2.14) | |

| 구평공장 | 권운현(2.01) | 김남준(2.13) |
|------|------------------------------|-----------|
| | 박덕필(2.01) <td>김천석(2.13)</td> | 김천석(2.13) |
| | 류시현(2.02) <td>손판석(2.16)</td> | 손판석(2.16) |
| | 최성문(2.03) <td>이성림(2.18)</td> | 이성림(2.18) |
| | 박관호(2.08) <td>성봉기(2.20)</td> | 성봉기(2.20) |
| | 진병석(2.10) <td>김정선(2.23)</td> | 김정선(2.23) |
| | 김중학(2.11) <td>박영군(2.27)</td> | 박영군(2.27) |
| | 나탈리아(2.11) | |

| 영암공장 | 이창현(2.01) | 최석균(2.13) |
|------|-----------|-----------|
| | 김동선(2.11) | |

EVENT 결과

계묘년의 '신묘한 새해' 이벤트 당첨자 발표



<SUNBO NEWS> 1월호 '신묘한 새해' 컬러링 이벤트에 45명의 선보Family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저마다 개성과 정성을 담아 그림 속 토끼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선보Family께 감사드립니다.

- 1등 치킨 교환권 : 이윤민 선임(전계장설계)
- 2등 배스킨라빈스 교환권 : 강형주 선임(전계장설계), 이명호 선임(재무팀)
-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 배상욱 선임(전계장설계), 정대환 선임(설계3팀), 조재욱 사원(설계1팀), 이준희 선임(경영기획), 박종혁 책임(영업1팀)

*추첨 진행 : 인진태 전무

EVENT

빛나던 그 시절로, 타임 리프

2월 말 개최될 전사 독서토론회 대상 도서명은 『사원의 마음가짐』입니다. <SUNBO NEWS>는 입사 시기가 천차만별인 선보Family가 책을 읽으며 새록새록 떠올렸을 '나의 신입사원 시절'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꿈과 열정으로 빛나던 나의 신입 시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세요.

“나의 신입사원 시절은 ”

부서 : _____ 성명 : _____

- ▶ 방 법 : 문장을 완성한 후 김자영 사원(총무팀)에게 제출
- ▶ 제출일 : 2월 28일(화)까지
- ▶ 추 첨 : 3월 2일(목) 무작위 추첨 후 선보Family SNS 계정을 통해 발표
- ▶ 상 품 : 1등 치킨 교환권(1명)
2등 배스킨라빈스 교환권(2명)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5명)

선보Family

슬기로운 선보 생활 - 전화 에티켓

선보공업 00팀 000입니다.

01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밝히기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회사명**과 **소속, 성명**을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03

임의로 결정하지 않기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하는 업무나 상황에서 **혼자 임의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발신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사수에게 보고합니다.

02

부재중인 자리의 전화 당겨받기

발신자의 **소속, 이름, 용무**를 메모 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04

상대방 전화 먼저 끊지 않기

대화가 끝난 후 전화를 바로 끊지 말고 **5초 정도** 후에 끊습니다.

SUNBO NEWS를 만드는 사람들

- 총괄 편집 김자영 사원
- 인사, 교육 김정석 팀장
- 총무, 행사, HSE 김영관 선임, 이대현 선임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배상준 사원
- 제작 미디어줌 (Tel. 051. 623. 1906)

입사기념일

| 본사 | 고나원(2.01) | 김영관(2.15) |
|----|-----------|-----------|
| | 김민진(2.01) | 김정석(2.15) |
| | 이지혜(2.01) | 노영훈(2.20) |
| | 백정태(2.03) | 박선영(2.20) |
| | 김진아(2.06) | |

| 다대1공장 | 강현욱(2.01) | 이창재(2.04) |
|-------|-----------|-----------|
|-------|-----------|-----------|

| 다대2공장 | 손동호(2.01) | 박재용(2.14) |
|-------|------------------------------|-----------|
| | 신정철(2.01) <td>백진호(2.20)</td> | 백진호(2.20) |
| | 윤성재(2.01) <td>이창현(2.20)</td> | 이창현(2.20) |
| | 윤한문(2.01) <td>양수원(2.22)</td> | 양수원(2.22) |
| | 이완섭(2.01) <td>유완중(2.25)</td> | 유완중(2.25) |
| | 윤대운(2.02) <td>송우섭(2.26)</td> | 송우섭(2.26) |
| | 이도희(2.08) <td></td> | |

| 선보피스 | 하창원(2.03) |
|------|-----------|
|------|-----------|

| 구평공장 | 박관호(2.01) | 한승목(2.10) |
|------|------------------------------|-----------|
| | 오진혁(2.01) <td>지수천(2.15)</td> | 지수천(2.15) |
| | 정준영(2.01) <td>장 린(2.16)</td> | 장 린(2.16) |
| | 강재현(2.04) <td>구성민(2.17)</td> | 구성민(2.17) |
| | 김영철(2.04) <td>반 십(2.19)</td> | 반 십(2.19) |
| | 김원길(2.04) <td>서찬호(2.20)</td> | 서찬호(2.20) |
| | 김정호(2.04) <td>임준택(2.20)</td> | 임준택(2.20) |
| | 김 술(2.08) <td>서태식(2.21)</td> | 서태식(2.21) |
| | 김도영(2.10) <td>오상호(2.24)</td> | 오상호(2.24) |

| 영암공장 | 오세준(2.07) | 김혜훈(2.18) |
|------|------------------------------|-----------|
| | 차밀라(2.09) <td>박정길(2.18)</td> | 박정길(2.18) |
| | 박성환(2.15) <td>이강윤(2.23)</td> | 이강윤(2.23) |